

현장감 살아있는 행정관료의 저작 활발

풍부한 사례와 경험 바탕...일반인 대상의 쉬운 해설서 아쉬워

실무자들의 전문적 경험을 농축해 놓은 현직 공무원들의 저작이 많아졌다. 지난해 출간된 굵직굵직한 책만도 십여종. 《정부계약제도》(법신사), 《국제조세의 이론과 예규》(광교아카데미), 《양도소득세의 실무》(조세통람사), 《알기 쉬운 공정거래》(중앙일보사), 《통계법》(기문사), 《일본의 지방자치, 어제와 오늘》(삼성경제연구소) 등 제목만으로 보자면 공무원 수험서이나 어울림직한 이 책들의 저자가 모두 사무관급 이상의 현직 공무원들이다.

공무원들의 저술활동이 눈에 띄게 늘어난 데 가장 크게 작용한 힘은 역시 '변화무쌍한 현실'. 특히 기업이나 국민들을 상대로 하는 국가 행정의 변화는 하루가 다르다. 지난해 WTO 체제의 출범이나 지방자치제 실시 같은 변화도 관계 법령의 개편 및 적용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변화하는 행정현실 반영

《정부계약제도》의 경우, 국내 기업이 독점해 왔던 국가지방자치단체나 정부 투자기관의 공사, 물품조달 등 30조원에 이르는 정부조달시장이 대외에 개방됨에 따라 개편된 정부계약제도의 내용을 담은 것이다. 이 책의 저자인 장흥기씨는 현재 재정경제원 국고국 회계총괄과에 근무하는 서기관인데, 95년 7월 제정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참여했던 경험을 고스란히 담았다.

또 국내 경제시장의 대외 개방이라는 현

실은 국제조세 이론의 재정립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 국제조세과의 박차석 계장은 삼성세무서에서 법인세를 맡고 있는 최기현, 재정경제원에서 국제조세 예규를 담당하던 이현규씨와 함께 《국제조세의 이론과 예규》를 펴냈다. 비슷한 종류의 책이 없지는 않다. 하지만 현직 공무원의 저작은 "법령의 입안이나 질의 회신을 통해 유권해석을 한 경험이 많아 그 현장성이나 구체성에서 비교가 안된다"는 게 출판 관계자들의 중평이다. 《국제조세의 ...》는 국세청·재정원에 하루에도 수십건씩 들어오는 예규들을 66년 국세청 개청일부터 최근 95년 12월 31일까지 1,408건이나 집대성했다.

"전문직 종사자들의 국제조세 관련예규집이 '과세합', '그렇지 않음'으로만 정리되어 적용범위가 좁았다면 현직 공무원들의 예규 모음은 검토 조사과정이 그대로 드러나 적용범위가 훨씬 넓다는 게 장점"이며 "다른 책이 이미 완성된 반찬이라면 현직 공무원들의 책은 조리 전의 반찬거리"라는 것이 광교아카데미 우형민 이사(38)의 설명이다. 재정경제원 세제실 재산세과와 양도세 담당으로 근무하는 이상조씨의 《양도소득세의 실무》 역시 현장감각이 살아 있는 268가지 예규가 돋보이는 책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김병배 경쟁촉진과장이 쓴 《알기 쉬운 공정거래》도 경제규모의 확대에 치열해진 시장경쟁, 재벌기업의 시장 지배력이 커짐에 따라 점점 늘어가는 불공정행위가 출간을 도왔다. 최근 발생한

현직 공무원들이 전문적인 경험을 농축한 저작을 활발하게 쏟아내고 있다.

이들 책은 현장성과 구체성에서 뛰어난 장점을 지닌다.



최근 들어 현장 경험이 살아 있는 행정관료들의 책이 나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백화점 사기 세일' 등의 풍부한 공정거래 사건을 조사하고 그 판결내용을 담아 공정거래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을 높였다.

경제분야에 집중

공무원 사회의 공복(公僕) 개념 확산과 선진화하는 행정 쇄신에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공부하는 분위기가 조성된 것도 책 출간의 요인 가운데 하나다. 일본 과련 근무의 경험을 담은 <벚꽃의 뿌리> 시리즈를 출간한 재경원 국제협력단의 이호철씨나 《통계법》을 펴낸 통계청 김상식 통계조정과장, 《독점 금지법의 정신과 실무》(크레이그 W. 콘라스 지음, 한국경제신문사)를 번역한 총리실 제2조정관 한정길씨 등이 이 범주에 든다.

삼성경제연구소의 임진택 대리는 "행정 공무원들의 외국과련 경험은 선진국의 행정

사례를 접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통로"라며 공무원들의 저작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몇몇을 제외하면 공무원들의 책은 아직까지 경제분야에 한정되어 있는 편이다. 출간 준비중인 책도 국제 조세, 지방세, 토지공개념법 해설, 특별소비세 실무, 정부회계와 감사 등 경제분야가 주종을 이룬다. 이것은 독자들의 관심이 경제분야에 집중돼 있음을 의미한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세법이 개인이나 사기업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가 등의 관심이 책 출간을 북돋운다.

한 조세관련 전문 출판사의 실무자는 "모든 국민이 납세 의무를 지고 있다면, 어떤 세금을 얼마나 내고 그것이 어떻게 쓰이는지 알고자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전문용어와 어려운 법조문을 쉽게 해설한 대중적인 책이 많이 출간되기를 희망했다.

—이현구 기자

아래아 한글

출력 센터!

- 필름, 인화지, 레이저 프린트 출력
- PC 입력한 자료 편집 및 출력대행
- 다양한 서체

예일출력센터

중구 초동 18-15 대림 B/D 2층
TEL : 272-0461(代)
HITEL : Y0461

충무로
스카라 극장
명보극장
· 한미은행
· 을지로 3가전철역

◇ 빠르고 신속하게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22 출판저널/205호